



중국청도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
이승국 소장

“중국의 조명산업 현황”

3. 조명산업 내부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2005년 중국은 광범위한 정책규정에 의해 조명산업 시장은 장기적임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유럽연합의 계속적인 무역장벽의 설치로 인해 중국 조명산업의 기업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되었다.

2006년 “十五계획” 을 기점으로 중국은 전면적으로 상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게 되며 국가는 총력을 다해 절약하고 오염을 감소시키며 건설과 사회의 화합을 제창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최대의 한도 내에서 경제성장을 하고 성과를 이룩한 해이다.

1월25일 北京에서 발표한 《2006 세계경제 형세와 전망보고》에 따르면 2006년은 세계 경제성장에 있어 비교적 완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시적정책하에 제시된 아래의 몇가지 주요사항들은 앞으로 조명산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1) 세금징수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국 국가 세무국장 왕리는 (王力)는 신문기자 회견에서 “2006년 세무부분에서는 부동산에대한 세금징수관리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2005년 중국의 기업 소득세수입액은 최초로 4000 억위안을 돌파했으며 이것은 기뻐할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기업 소득세증가의 배경에서 주시할 점은 장기적인 조방식(조밀하지않고 거칠은)의 경제성장방식에 따라오는 문제점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고 몇몇 산업은 생산과잉이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잃었고 원가의 증폭과 가격의 폭락등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장 시에쉬런(謝旭人)은 “올해는 세금징수에 대해서 특별세무검사와 특별관리를 강화할 것, 게다가 기업소득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세금안전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탈세등의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것” 이라 선포하였다. 조세실태확인과 완전한 세금납부를 위해 평가강화 및 분류관리 등의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납세자의 수입신고와 원가에 따라 납세항목에 대한 유효한 심사와 규제를 진행한다. 정확한 소득액 신고와 납세로서 세금이 세는 곳을 막고 철저히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기업소득세 관리에 대한 효율을 높여갈 것이다.

대응방안 :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방안을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최근에 새로운 <<기업소득세 회계의 깨끗한 관리방법>> 을 발표하였다. 본 발표문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납세자에 대한회계 감사와 기업 소득을

에따른 소득세를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세 혹은 면세 기간에 관계없이 또 기업이 흑자 이거나 적자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 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부과할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탈세를 하거나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중국의 기업을 크고 건강한 기업으로 만들어야할 것이며 이 법령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기업은 튼튼하고 성실한 기업으로 거듭 날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어느 시기가 되면 기업의 모든 생산품의 부정적 측면은 찾아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관리감독 강화

국가공상국 관련 책임자는 최근 표명한바에 따르면 2006년에는 무작위 선별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함과 동시에 위조 및 가짜상품을 단속하고 시장환경을 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중국은 건축자재의 생산기업과 시장 유통 기업에 관해 건축자재와 재료, 3C인증이나 에너지 절약 및 절수용 제품, 가구, 조명장식등에 대한 열가지의 강제성 표준규격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관리 단속을 강화할 것과 기업의 수준이나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각 협회와 품질 검사소에서는 신고전화와 의견함을 운영할 것이며 수집된 각 방면의 의견과 투서들을 조합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는 사업체를 처벌할 예정이다.

더 개선된 회계시스템과 인터넷, 대중매체, 신문 발표회 등을 여는 방식으로 무작위 선별 표본조사

실시를 공포할 것이며 또 우수기업의 명단과 우수상품의 명단을 발표하고 불합격된 상품과 기업명단도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좋은 상품을 보호하고 위조나 가짜모조품을 근절할 것이며 앞으로는 국민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소비활동을 이끌어낼 것이다.

대응방안 : 기업의 모범적인 생산과 경영을 하려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의 중간중간에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여 불합격상품의 시장유입을 철저히 막고 가짜 위조상품을 소탕하고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신임을 얻도록 할 것이다.

3) 주택소비의 수요 억제

2006년 국가정책의 주요한 방향은 내수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계속되는 부동산의 소비는 국민경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 억제를 위해 주택 소비에 따른 신용대출에 의한 특혜대출방식을 엄격히 규제하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려 했던 것은 많은 소비자로 하여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였다. 소비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신용대출정책의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경제활성화용 부동산 공급대책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소비는 현재 활을 당기기만 하고 쓰지 않는 상태에 처해있는 것이며 이것은 현재 거대한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로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부동산 소비와 투자는 중간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투자는 모든 고정적 재산투자의 3분의1에 해당한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투자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대응방안 : 가구, 조명 기업은 부동산 시장의 동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의 수요량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주택 소비 수요는 아직 많기 때문에 가구나 조명시장의 수요 또한 가벼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4) 절약은 위기와 기회를 제공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2006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저효율 제품이나 저생산성 재료, 수자원 낭비성제품 등에 대한 개발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 지적하였다.

건설부는 명확하게 각 도시에 주요 도로나 중심가의 범위 내에서 과도한 전등용 장식재료의 사용이나 정원 조명의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경관조명에 대한 조도가 강력한 조명이나 고성능 발광등, 큰면적의 네온등, 유색 전구, 미관등 등에 대한 고량도(亮度) 조명시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 중국전역의 여러 대도시에서 소비율이 높은 조명등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와 단속정책을 동시에 실시 하여 높은 소비성의 조명상품의 유통을 억제할 것이다.

대응방안 : 국가건설부 책임자는 도시조명의 광원, 전등재료등의 시스템사용을 제한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고효율 절약형 제품의 인증을 거친 상품에 대한 사용을 권장한다. 태양열을 이용한 도로가로등이나 정원조명등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조명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고압나트륨등, 금속할로겐등, 반도체발광등(LED), T8, T5형광등, 집약형형광등(CFL)과 같은

고효율형광등에 대한 상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할 것이다.

5) 환율개혁은 양날의 검

2월6일 9시 14분 중국 외환교역센터 에서는 춘절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외환교역에서 인민폐와 달러는 중간가격이 8.056:1 의 환율을 기록했다. 이번 인민폐 환율수준은 인민폐 환율의 신기록을 세웠으며 인민폐의 미 달러에 대한 평가절상이 3%에 근접하였다.

수출 관련업체들은 새로운 인민폐 환율이 원가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수출형기업이 반듯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민폐의 평가절상 이후 기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수출상품에 대한 달러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중국 상품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되고 국제시장에서의 수요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때 수입상품의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되서 국내 수입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수출저하로 감소되는 경제 성장을 다시 적극적으로 이끄는 작용을 동시에 하게 될 것이다. 작년과 비교해볼 때 올해 순수수출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투자 생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대응방안 : 국제시장위주의 경영을 해야 한다. 생산비의 증가는 국내시장의 전구장식재 생산 기업의 이윤 공간을 더 악화시키게 되었으므로 기업의 기술발전의 상승을 촉진하고 기존의 가격과 원가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다.

6) 원자재가격상승추세

국무원발전연구센터등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강철 생산 통계는 대략 3억8000만톤에 달할 것이며 소비량과 비교하여 볼 때 강철 생산량은 과잉공급 상황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강철의 가격 또한 2005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의 하락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瑞銀그룹의 아시아 수석 경제전문가 Jonathan Anderson 은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다만 내부소비와 투자부문에서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하였으며 그 중 중국 건축 사업은 2006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는 시멘트와 철강 알루미늄 등 기타 생산 재료에 대한 수요의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대응방안 : 조명기업체의 입장에서 볼때 이 전망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좋은 소식 이지만 공급과 수요가 평행하게 유지된다면 상당한 양의 재고가 쌓이게 될 것을 제조업자들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7) “유럽환경보호법안” 전면실시

(폐전기전자제품의 환경 친화적인 최종처분과 수집 및 회수에 관한 법률) 2006년 중국의 가전업계에서는 “유럽환경보호규정”의 <<폐기전자전기설비관련법안>>(간칭WEEE)와 <<전기전자설비관련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법안>>(간칭ROHS)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보호규정”은 환경보호가전, 전기제품의 유해 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을 다시금 높이게 되었다.

WEEE규정에는 2005년 8월13일 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자전기설비 생산기업(수입 및 유통업체포함) 들에게 법률상에 근거하여 생산품의 모든 시장의 유통량과 비례하게 상품 회수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금액을 부담하게 한다는 규정을 담고있다. ROHS규정에는 2006년 7월1일 이후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전기전 자제품에는 환경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 과 폴리브롬화비페닐(PBB), 폴리브롬화디페닐 에티르(PBDE) 등 난연제의 사용을 제한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대응방안 : 유럽연맹의 환경오염물질규제규정 에서는 전기제품의 재활용에 소용되는 총 원가와 가전제품생산업체의 생산자재에 대한 제한 이두가지로 인해 중국의 가전제품의 수출원가는 10%정도 상승하게 되었다. 게다가 기술력이 없거나 이 법안의 규제를 실행할 수 없는 일부 기술력이 낮은 생산기업은 유럽 수출의 길이 막혀버린 셈이다. 이것은 유럽진출을 위한 기업들에겐 기술의 장벽이 되어버린 것이다. 2006년은 유럽연맹이 화려한 고소비성 조명등에대한 시장에서의 퇴출 활동을 진행하였던 해이다. 유럽의 거대한 3대 조명기구회사의 주도는 짧은 시간에 중국내의 여러 절전조명기구업체의 발전에 큰 동기가 되었다.

▶ 다음호에 계속